

매개모델을 이용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

김순구¹, 서영숙^{1*}
¹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Affecting Factors of Clinical Competence in the Nursing students Using a Mediation Model

Soon-gu Kim¹, Young-sook Seo^{1*}

¹Dept. of nursing, College of Daegu-Health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 간에 인과관계를 알아보고,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는 3개 대학교의 간호대학생 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18.0 program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매개효과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대상자의 감성지능,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가 나타났으며, 감성지능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as well as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clinical competence with the mediation of self-efficacy. The participants were 182 nursing students, and the data were collected during from October 14, to November 10, 2014.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ediation pathway with the SPSS 21.0 and AMOS 18.0 progra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clinical competence. Second,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clinical competence showed direct and indirect associations. Emotional intelligence was found to influence the self-efficacy and clinical competence directly, and self-efficacy influenced the clinical competence directly. Mediation analyses indicated that emotional intelligence influences the self-efficacy.

Keywords : Clinical competence, Emotional intelligence, Nursing, Student, Self-efficacy.

1. 서론

1.1 연구필요성

현대사회는 눈부신 의료기술과 정보기술이 융합되면서 지식기반의 의료정보가 대종화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생활수준 및 교육수준 향상으로 건강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보건 의료계 환경변화로 인하여, 간호학문은 전통적인 학문탐

구에서 벗어나 역량중심의 교육성과를 중시하는 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하였다[1]. 이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개인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졸업한 시점에서 일반간호사가 임상현장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간호역량을 제시하였고, 각 교육기관마다 간호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2].

간호학문에서 요구하는 간호역량은 간호에 대한 임상

*Corresponding Author : Young-sook Seo(College of Daegu-Health)

Tel: +82-10-5529-1657 email: seo1657@dhc.ac.kr

Received December 10, 2015

Revised (1st January 13, 2016, 2nd February 3, 2016)

Accepted March 3, 2016

Published March 31, 2016

수행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3],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4], 간호교육의 중요한 성과지표이다[2,5]. 최근에는 임상수행능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6],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강의위주의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문제해결 방법과 시뮬레이션 방법 등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7]. 또한 임상수행능력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7-9]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관련된 요인으로 자아탄력성[8-10], 문제해결능력[7-9], 비판적 사고나 사고성향[6,7-9,11], 임상실습만족 및 임상실습스트레스[5-7,9,10,12], 진로정체감[7], 자기효능감[5,13-15], 감성지능[12-17] 등이 보고된바 있다.

이들 변인 중에서 감성지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질로서, 의사결정과 리더십, 의사소통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능이다[18]. 이처럼,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19,20], 자신이 특정한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결국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20-22]. 또한 감성지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감성을 발휘하여 공감하고[23,24], 다양한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25], 개인의 업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유도해 낼 수 있게 된다[13,14]. 특히 다양한 환자와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간호사와 예비간호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변수이며, 간호실무에서도 강조하고 있다[13].

이에 감성지능에 대한 연구는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18], 국내에서도 2009년 이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감성지능에 대한 연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5,13,16,26]. 최근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감성지능 관련 연구는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13,15,20]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련성[21],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 관련성[14], 감성지능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26] 등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지는 결과[14],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결과[13,15,20],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지므로[14],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임상수행능력에 직·간접적인 인자로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고,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로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의 관련변인을 알아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감성지능 및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고,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셋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문헌고찰

2.1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

감성지능은 Wong과 Law [23]에 의해 구체화된 개념으로서, 자기자신과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활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23]. 최근에는 감성지능이 업무성과와 리더십, 소진 등의 조직유효성에 대한 연구[20,25]가 많았다. 특히 간호사의 감성지능은 아픈 대상자를 돌보면서 환자, 환자가족의 중재역할로 병원내의 다양한 보건의료팀과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데, 이때 간호사의 감성지능은 효과적인 중재역할에 중요한 인자로 보고되었다[20].

이와 관련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ang과 Sung [28]과 Dharmaneegara와 Pradesa [13]의 연구에서 감성지능이 간호실천과 간호행위와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Gu [26]연구에서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증진시키고, 임상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14-16]에서 감성지능은 임상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의 일정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2.2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Bandura [22]의 사회적 학습이론에 의해 제시되었고, Bandura [22]와 Schwarzer와 Jerusalem [29]에 의해 구체화된 자기효능감 이론으로서,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22,30]으로 정의되었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실제경험과 관찰경험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된다고 제시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특정한 과제에 대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22,30]. 결국,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수행수준을 예측변수로 설명하고, 자기조절을 조절하여 업무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이후 자기효능감과 관련한 연구는 급연과 운동수행, 성취상황, 자기주장, 역량 등 많은 영역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30], 최근에는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과의 영향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 등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18,22],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여 자신의 행하고자 하는 어떠한 행동의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므로[22,30,32], 감성지능은 자기효능감의 선행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21].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사[13,21]와 간호대학생[14,15,21], 의대생[27]을 대상으로 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의 선행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의 일정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2.3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실무 상황에서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지식과 판단, 기술을 통해 능숙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4,32]. 이때 자기효능감은

특정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인간행동의 결정요소로 작용하였다[21]. 이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은 임상수행능력 과 정적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5,14-17]. 한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Dharmaneegara와 Pradesa [13]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자신감과 자신의 능력에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지만, 임상수행능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성적 지능은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감성적 지능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직접효과와 매개효과가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및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3.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와 G시에 소재하는 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6개월 이상 임상실습 과정을 수료한 3학년과 4학년을 편의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고 서면날인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자료는 연구자의 권리, 연구목적만으로 사용할 것, 연구 참여에 대한 비밀보장, 익명을 보장하고, 응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를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95%, 효과의 크기(f_z)를 .15일 때, 본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표본크기는 166명이었다. 편의표집 대상자의 탈락률을 20% 고려하여 총 연구대상자는 200명을 계획 수행하였으며, 198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자료 16부를 제외하고 182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3 연구도구

3.3.1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활용할 줄 알며 자신의 감성을 잘 조정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23]. 본 연구에서는 Wong과 Law [23]가 개발한 감성지능 도구(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를 Han과 Yoo [33]가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도를 검증 받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자신의 감성이해 4문항, 타인의 감성이해 4문항, 감성의 활용 4문항, 감성의 조절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의 5점 Likert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n과 Yoo [3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3.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을 의미한다[22]. 본 연구에서는 Lee, Schwarzer와 Jerusalem [34]이 개발한 한국어판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의 5점 Likert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3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2이었다.

3.3.3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간호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4]. 본 연구에서는 Lee 등[4]이 개발한 도구를 Choi [36]가 수정보완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6문항으로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9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잘한다’ 5점에서 ‘매우 잘 못한다’ 1점까지의 5점 Likert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hronbach's α .9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21.0과 Amos 18.0 program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는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들 간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와 변수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의 매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경로분석을 이용하였다.

5. 연구결과

5.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90.1%이었으며, 학년은 4학년이 52.7%, 3학년이 47.3%이었다. 전 학기 평균 학점은 ‘3.0-3.9’ 이 67.6%, 간호학과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37.9%이었다. 간호학의 적응도는 ‘그저 그렇다’가 61.0%, 대인관계는 ‘그저 그렇다’가 56.0%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상태는 ‘좋다’가 36.3%였다<Table 1>.

5.2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의 기술통계와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감성지능의 정도는 3.24점/5점,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2.92점/5점,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는 3.11점/5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감성지능은 자기효능감($r=.47, p<.001$)과 임상수행능력($r=.62, p<.001$)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은 임상수행능력($r=.53, p<.001$) 간의 정적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2, 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64 (90.1)
	Male	18 (9.9)
Grade	3rd	86 (47.3)
	4th	96 (52.7)
Academic adjustment	4.0-4.5	37 (20.3)
	3.0-3.9	123 (67.6)
	2.0-3.0	22 (12.1)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Good	69 (37.9)
	Moderate	93 (51.1)
	Bad	20 (11.8)
Adjustment to nursing major	Good	50 (27.5)
	Moderate	111 (61.0)
	Bad	21 (11.5)
Interpersonal relationships	Good	52 (28.6)
	Moderate	92 (50.5)
	Bad	38 (20.9)
Health status	Good	66 (36.3)
	Moderate	108 (48.4)
	Bad	28 (15.4)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 of Measured Variables (N=182)

Variables	Mean±SD	Potential range
Emotional intelligence	3.24±5.16	1-5
Self-efficacy	2.92±2.87	1-5
Clinical competence	3.11±12.29	1-5

Table 3. Correlations among Measured Variables (N=182)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Self efficacy	Clinical competence
	r (p)	r (p)	r (p)
Emotional intelligence	1		
Self-efficacy	.47 (.001)	1	
Clinical competence	.62 (.001)	.53 (.001)	1

5.3 대상자의 감성지능,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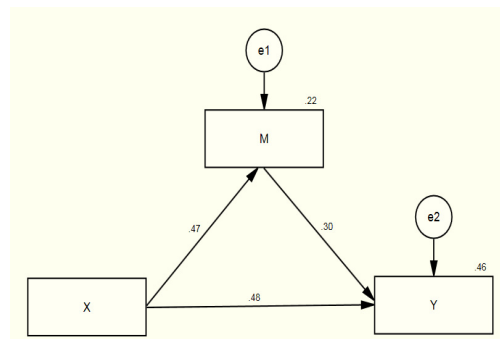
대상자의 감정지능과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경로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지수는 $\chi^2=0.000$, $df=0$, $RMR=.000$, $GFI=1.00$ 으로 나타나 모델적합도는 완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R.=9.62$, $p=.005$)[Fig. 1].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의 직접효과는 .469($p<.001$),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직접효과는 .477($p<.001$),

감성지능이 매개되었을 경우 .143($p<.001$) 간접효과가 더해져서 총효과는 .620($p<.001$)로 상승되었다.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직접효과는 .304($p<.001$)으로 나타났다<Table 4>. 이상의 결과에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for path model (N=182)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Emotional intelligence → clinical competence	.477		.477 *
Emotional intelligence → self-efficacy	.469	.143	.620 *
Self-efficacy → clinical competence	.304		.304 *

* $p<.001$



X=Emotional intelligence ;M=self-efficacy ;Y=clinical competence.

Fig. 1. Pathway model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clinical competence

6.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이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을 구축하여 이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상자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으로 보고한 선행연구[14-1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감성지능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감성지능은 감정개입이 많은 임상상황에서 주어진 간호를 수행하는데 즉각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여[14] 임상수행에서 어려운 상황적 요인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간호사가 간호하는 대상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다. 이처럼 간호사는 다양한 대상자를 돌보면서, 전문직의 보건의료팀과 함께 간호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때 간호사의 감성지능은 간호대상자와 팀 인력들과 상호간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하여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고 나아가 임상실무를 수행하는데 기여하게 된다[17].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간호사나 간호관리자의 감성지능은 양질 간호실무 수행을 위해 자신과 간호대상자, 보건의료팀 내에서 주요 기여인자로 강조됨을 고려해 볼 때[14], 예비간호사를 배출하는 간호교육의 측면에서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감정전환하는 방법, 임상실습시 해결하기 어려웠던 상황 공유하기 등의 다양한 방안 모색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상자의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5,21,27]의 결과와 일관되었다.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23,31], 감성지능이 높은 경우는 자신의 감정을 활용하여 자신의 과업수행을 잘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게 된다[14,31]. 특히 자기효능감은 특정 영역의 과제에 대해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과 성취하고자 하는 수행과제에 대해 자신의 판단을 보여주는데[31], 이때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선행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5,13-15]에서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으로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Dharmanager와 Pradesa [13]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간호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의 차이와 임상수행능력과 간호행위로 측정도구의 차이로 보여진다. 이에 대상자별로 비교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수행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14],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더 많은 노력과 끈기 있게 도전하여[31], 특정업무의 수행과 성과를 이루게 된다 [14]. 이처럼 본 연구결과에서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수행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을 조절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토대로 실무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됨[17]을 감안할 때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게 되고, 나아가 임상수행능력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임상수행능력이 낮은 간호대학생들을 중재할 때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경우 지식과 수행 사이에 중요한 매개변수[31]로 연구되어져 왔으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선행요인[5,13-15]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이론교육에서 습득한 지식을 다양한 임상실무에서 다양한 사례경험을 통해 자신의 인지체계가 재구성되면서 통합하게 된다[8]. 이때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규제하여, 자신의 인지적 변화를 유도하게 되고, 결국 임상수행에 대해 자신감을 증가시켜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감성지능의 향상뿐 만 아니라 자기효능감 교육을 병행할

때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선행연구들은 전공관련 특성과 정서적요인, 인지적요인 등을 다양한 변인에 중점을 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서 중요한 정서적, 인지적 요인에 대한 관련성 및 매개효과를 밝혔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변수임을 알 수 있으며,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의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8.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고,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무작위 표집을 하지 않았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대상자의 표집을 무작위로 하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학년별로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비교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Public hearing on the accreditation of nursing: strategies for the accreditation of nursing in 2012, Seoul, 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
- [2] J. E. Song, J. W. Park, M. S. Yoo, "Nursing program learning and development of assessment system centrally about improvement of applying skills of the nursing process based on critical thinking skills-the first time learning and research-based nursing curriculum presentation competition."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3.
- [3] J. K. Ko, M. S. Chung, M. A. Choe, Y. I. Park, K. S. Bang, J. A. Kim, M. S. Yoo, H. Y. Jang, "Modeling of nursing competencies for competency-based curriculum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9(1), pp.87-96,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1.87>
- [4] E. J. Lee, Y. J. Yi, Y. S. Kim, H. S. Jo, H. S. Kim, Y. M. Kim, K. H. Park, J. S. Kim,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completed nursing co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7(2), pp.218-225,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2.218>
- [5] J. W. Park, C. J. Kim, Y. S. Kim, M. S. Yoo, H. R. Yoo, S. M. Chae, J. A. An, "Impa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eneral self-efficacy, and 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ine Education*, 24, (3), pp.223-231, 2012. DOI: <http://dx.doi.org/10.3946/kjme.2012.24.3.223>
- [6] H. J. Jang, Y. K. Kwag,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 (9), pp.4380-4387,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9.4380>
- [7] Y. H. Kwon, O. G. Kwag, "Validation of a path model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10), pp.4572-4581, 2012. <http://dx.doi.org/10.5762/KAIS.2012.13.10.4572>
- [8] E. K. Lee, J. A. Park, "Ego-resilience and th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2), pp.293-303,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10.4572>
- [9] J. S. Kim,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7(2), pp.94-102, 2012.
- [10] Y. S. Park, Y. H. Kwon, "Ego resilienc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9(30), pp.341-350,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3.341>
- [11] K. A. Shin, B. H. Cho,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s of Nursing*, 19(1), pp.46-56, 2012.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1.046>
- [12] O. S. Lee, M. O. Gu,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pp.2749-2759,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749>
- [13] I. B. A. Dharmanegara, H. A. Pradesa,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toward caring

- behavior among nurses in public hospital denpasar bali." *IOSR Journal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 4(2), pp.9-15, 2015.
- [14] S. Y. Ya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competence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6), pp.370-378, 2015.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5.15.06.370>
- [15] E. W. Ric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clinical performance in associate degree nursing students. Ph. D. Dissertation, Capella University, 2013.
- [16] O. S. Lee, M. O. Gu, M. J. Kim,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 pp.380-388,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380>
- [17] M. R. Farshi, M. Vahidi, M. Jabraeili,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linical competencies of nursing students in tabriz nursing and midwifery school." *Research and Development in Medical Education*, 4(1), pp.91-95, 2015.
DOI: <http://dx.doi.org/10.15171/rdme.2015.015>
- [18] J. D. Mayer, P. Salovey,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and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pp.3-31. New York: Basic Books.
- [19] D. Beverly, J. A. Williams, M. Kitterlin, "Leaders exhibiting high emotional intelligence are more dedicated to their job performance." *Open Journal of Leadership*, 1(4), pp.37-41, 2012.
DOI: <http://dx.doi.org/10.4236/ojl.2012.14006>
- [20] M. M. Bakr, S. M. Safaan, "Emotional intelligence: A key for nurses' performance." *Journal of American Science*, 8(11), pp.385-393, 2012.
- [21] K. H. Lee, J. S. Song,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self-efficacy and job stress of nurses: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1), pp.17-25, 2010.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0.16.1.17>
- [22]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84(2) pp.191-215, 1997.
- [23] C. S. Wong,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Leadership Quarterly*, 13, pp.243-274, 2002.
DOI: [http://dx.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dx.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24] J. Y. Lee, J. H. Je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demand and burn-out: Focused on tourism employees."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4(4), pp.277-294, 2007.
- [25] C. S. Jang, J. O. Park,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10(11), pp.209-223, 2012.
- [26] O. S. Lee, M. O. Gu, "Development an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6), pp.682-696, 2015.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4.44.6.682>
- [27] A. Gharetepeh, Y. Safari, T. Pashaei, M. Razaeei, M. B. Kajbaf, "Emotional intelligence as a predictor of self-efficacy among students with different levels of academic achievement at kermanshah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Journal of Advances in Medical Education and Professionalism*, 3(2), pp.50-55, 2015.
- [28] H. S. Kang, K. W. Sung,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geriatric nursing practice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Korean Gerontology Nursing*, 17(1), pp.29-37, 2015.
DOI: <http://dx.doi.org/10.17079/jkgn.2015.17.1.29>
- [29] R. Schwarzer, M. Jerusalem, Generalized self-efficacy scale. In: Weinman J, Wright S, Johnston M, editors. *Measures in health psychology: A user's portfolio Causal and control beliefs*. pp.35-37, Windsor, UK: Nfer-nelson, 1995.
- [30] Self-efficacy. Available from: <https://ko.wikipedia.org/wiki/cited> 2015 November.
- [31] B. J. Zimmerman, A. Bandura, M. Martinez-Pons,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setting." *Journal of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29, pp.663-1984, 1992.
DOI: <http://dx.doi.org/10.3102/00028312029003663>
- [32] J. A. Bennett, "Mediator and moderator variables in nursing research: Conceptual and statistical difference."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3, pp.415-420, 2000.
DOI: [http://dx.doi.org/10.1002/1098-240X\(200010\)23:5<415::AID-NUR8>3.0.CO;2-H](http://dx.doi.org/10.1002/1098-240X(200010)23:5<415::AID-NUR8>3.0.CO;2-H)
- [33] J. H. Han, T. Y. Yoo, "The effects of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on subordinate's attitude and leader's task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8(1), pp.177-99, 2005.
- [34] Y. M. Lee, R. Schwarzer, M. Jerusalem, 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1997, <http://userpage.fu-berlin.de/~health/korean.htm>, cited 2014 November.
- [35] S. H. Kim,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f residents of single-room occupancy hotels. M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02.
- [36] M. S. Choi,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M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5.

김 순 구(Kim, Sun Gu)

[정회원]



- 2003년 8월 :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원간호학과 (간호학박사)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간호교육

서 영 숙(Seo, Young Sook)

[정회원]



- 2011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관심분야>

간호관리, 만성질환